영상 전법의 견인차… 선지식 법문 세계로

500회 맞은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10개국 163명의 국내외 선지식 초청. 방송횟수 1700여 회. 평균 참여 인원 500명. 모두 BTN불교TV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에 관련된 수식들이다.

BTN불교TV의 영상 전법 도량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가 8월 7일 500회를 맞았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진제 스님이 2011년 종정 추대 이후 총림을 벗어나 대중법회에서 법문을 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00명이 장사진을 이룬 이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와 함께 간화선 수행의 중요성을 설했다.

진제 스님은 "조계종은 부처님의 심인법을 잇는 종단"이라며 "중생의 근본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이 화두 참선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바로 보면 이 안에 진리가 있다. 곧 바른 수행을 하라는 것이 조계종의 종지"라고 강조했다.

불교TV의 영상 전법 도량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는 국내외 고승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청하고 이를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일요초청법회는 영상 전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콘텐츠로 시작 당시부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요초청법회는 2003년 열린 무상사 개원특별법회가 시작이었다.

무상사 일요법회의 첫 법문은 장좌불와와 하루 한 끼 공양, 염불선의 실천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뒤따랐던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이었다. 스님

2003년 무상사 개원하며 시작
국내외 선지식 163명 초청 법문
500회 법사 종정 진제 스님 모셔
"1천회 법회 준비하며 정진할 것"

은 당시 개원법회 법문에서 "우리가 어째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를 알려야 하는 것인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면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도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무상사 개원 당시에는 일요일 법회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이 시대의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매력에 평균 500명의 신도들로 법당은 가득 찼다.



500회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열면서 여러 진기록들이 세워졌다. 총 163명의 국내외 선지식들이 법상에 올랐고, 참여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부터 원로의장 밀운 스님, 前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등 선 · 교 · 율의 선지식들이 법사로 참여했다. 또한 입적한 前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과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법장 스님, 정대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무진장스님 등도 일요 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했다.

법회를 녹화 중계해 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일요초청법회의 큰 장점이었다. 현재까지 일요초청법회의 방송 횟수는 1750회이며, 방송 평균 러닝타임이 40분정도임을 감안하면 총 방송시간은 70,000분 · 1167시간에 달한다.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는 "불교TV가 한국불교 대표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500회를 맞이한 무상사 일요초청법회가 초석이었다"면서 "이제 1,000회 법회를 준비하며 소중한 기쁨을 불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한국불교 대표방송 불교TV와 무상사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 최초 원폭2세 환우 쉼터 개원

합천평화의집, 8월 6일 개원식 거행



합천평화의집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거행했다.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우들을 위한 생활 쉼터가 개원했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거행했다. 원폭 2세 환우들을 위한 쉼터 공간 개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합천평화의집을 지원하고 있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이날 "(히로시마 원폭투하) 71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며 "특히 원폭2세는 19대 국회서 통과한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번 원폭2세 쉼터 개원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합천평화의집 측은 "이 쉼터는 민간 차원으로 운영되며, 원폭 2세 문씨 형제를 포함한 4명의 환우들이 생활할 예정"이라며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2세 환우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김성만 합천군의회 의장, 히라오카 다카시 일본 히로시마 前 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 존엄성 알리자" 생명포럼 공식 출범

종교계 및 학계 인사 '한시적' 모임… 8월 18일 출범식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교인 및 학계인사들이 모여 창설한 '생명포럼'이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은덕문화원서 공식 출범한다.

생명포럼은 '생명존엄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만들자'는 취지로 창설된 한시적 모임이다. 김영호 前 산업자원부 장관,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 정민걸 공주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박병상 가톨릭대 교수, 윤용택 제주대 교수, 김은진 원광대 교수, 이원영 수원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6대 종교인들과 학계 인사들이 모였다.

생명포럼은 △세계생명헌장 또는 협정서 구성 △내년 대선 생명정책 공약 도출 등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계획하고, 오는 9월과 10월 각각 국회와 오대산 월정사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2차 세미나도 진행된다. 2차 세미나 주제는 '동물의 희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박아름 기자

나무여성인권, 에코젠더사업 실시

조계종 후원으로 진행
9월 30일 모집 마감

비영리단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인권과 성 평등 향상을 위한 '에코젠더사업'을 실시한다.

조계종 사회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불교적 평등관과 생명존중 사상을 통해 혐오 차별을 지양, 인권과 성 평등 의식을 향상시켜 사회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경기지역 사찰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내용은 △연기법으로 배우는 평등과 생명 △차별과 혐오, 인권이 답이다 총 2개 주제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사찰 및 복지관, 지역기관 등 기관단위로 전화(02-732-1367) 또는 메일(namuright@hanmail.net)로 신청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쏘고 찌르고… 불자선수 金·金·金

양궁 男단체 · 펜싱 박상영
사격 진종오 등 쾌거

2016리우올림픽에 나선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고 있다.

양궁 남자단체전에 참가한 구본찬 · 김우진 · 이승윤 선수는 6일(현지시간)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서 최상의 기량을 뽐내며 미국을 세트점수 6-0으로 꺾고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본선 내내 상대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이로써 2012런던올림픽서 동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양궁 남자단체 국가대표 선수들은 돈독한 불심을 바탕으로 사찰에서 불교수행을 하며 집중력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졌다.

언더독(Underdog)으로 평가되던 펜싱 남자개인 에페 박상영 선수는 결승전



서 상대선수에게 10-14로 밀리다가 막판에 5연속 득점을 하며 금빛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박 선수는 2011~2013년 경남체육고 재학시절 영축종림 통도사가 주관한 체육인불자 장학생에 선정됐다. 박 선수 모친 역시 신심 깊은 불자로 대회를 앞두고 두 달여 동안 전국사찰을 돌며 108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했다.

사격간판 진종오 선수는 본인의 주종목인 50m 권총서 총점 193.7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동시에 세계 최초 올림픽 사격 3연패라는 대업도 달성했다. 그는 경기 중반 탈락위기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진 선수는 모친과 함께 불심을 닦으며 오랫동안 선전하고 있는 대표 불자선수 중 하나다.

이 같은 불자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0(위)-10(금메달)'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울러 경기를 앞두고 있는 다른 불자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출가자 국민연금 2017년부터 지원 시작

조계종 승려복지회에서 7월 30일자로 스님들의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공고를 공시했다. 승려복지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지원액은 2017년 1월부터 월 10,800원, 2018년에는 월 18,000원, 2019년부터는 월 36,000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신청은 조계종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 승려복지회로 이관하면 승려복지회는 지원여부를 심사해 2017년 1월 중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해 준다. (02)2011-1726 노덕현 기자

